

18~24개월 영아의 기질과 어휘습득: 단기 종단적 연구

장 유 경¹⁾ 이 근 영²⁾ 최 유 리³⁾ 이 순 목⁴⁾

한솔교육문화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어휘발달의 각기 다른 시기에 기질과 어휘습득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동일 영아들이 18개월과 24개월이 되었을 때 영아들의 기질(TTS, 백경숙, 1996)과 표현어휘수(어휘체크리스트, 배소영, 2002)를 종단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18개월에는 기분이 표현어휘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24개월에는 기분과 더불어, 적응성과 활동성이 표현어휘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18개월에는 기분이 유쾌할수록 영아들의 표현어휘수가 더 많으며, 24개월에는 기분이 유쾌할수록, 적응력이 좋을수록, 활동성이 낮을수록 표현어휘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18개월과 24개월의 기질과 어휘습득의 교차지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18개월에 반응강도가 높을수록 24개월의 서술어와 문법적 기능어의 수가 더 많았다. 한편 예상과 달리 18개월에 명사, 서술어, 문법적 기능어 등의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24개월에 기분이 유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휘습득의 단계에 따라 기질의 각기 다른 차원이 관계되며 어휘습득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주의집중에 관계되는 적응성, 활동성이 중요해짐을 시사한다.

주요어 : 기질, 표현어휘, 기분, 적응성, 활동성

1) 교신저자 : 한솔교육문화연구원 원장 (E-mail : ykchang@eduhansol.co.kr)

2) 한솔교육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 leaf2@eduhansol.co.kr)

3) 한솔교육문화연구원 연구원 (E-mail : yr0606@eduhansol.co.kr)

4)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smlyhl@chol.com)

I. 서 론

한국 영아들은 10개월경에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여 17개월에 평균 50개의 어휘를 말하고(장유경, 2004a) 20~21개월 사이에 100개의 어휘를 습득한다. 또한 23~24개월 사이에는 어휘폭발이 일어나서 하루 3~4개의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게 되며 36개월경에는 평균 499개의 표현어휘를 가진다(장유경, 2004b).

이처럼 처음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여 유창하게 모국어를 말하기 까지 약 2년여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영아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언어발달의 이론들이 제안되었다(인지적 제약성 이론: 장유경, 1997; Markman, 1989; Markman & Hutchinson, 1984; 상호작용 이론: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Akhtar & Tomasello, 2000; Baldwin, 2000; 연합주의 이론: Plunkett, 1997; Smith, 1995). 예를 들어, 제약성 이론에서는 영아가 새로운 어휘를 들을 때 ‘인지적 제약’이 작동하여 새로운 어휘가 사물 전체를 가리킨다고 가정하거나(전체대상 제약) 사물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므로 새로운 어휘는 새로운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정한다(상호배타성 가설). 이러한 가정이 어휘습득 과정에서의 혼돈을 줄이고 신속한 어휘습득을 돕는다고 한다.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의 영향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 및 양육자가 제공하는 언어적 입력의 양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주는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은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해주면 실제로 어휘발달이 촉진됨을 보여주었다(장유경, 이근영, 광금

주, 성현란, 2003; Hart & Risley, 1995; Hoff & Naigles, 2002; Huttenlocher, Haight, Bryk, Seltzer, & Lyons, 1991). 실제로 장유경 등(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와 영아의 책읽기 상황에서 어머니가 말을 많이 해주는 경우 영아의 어휘도 더 많았다. 한편 언어적 입력의 질 또한 영아의 어휘발달에 영향을 주어서 영아의 언어적 반응에 대한 피드백과 질문하기는 많을수록, 금지와 제지, 설명하기는 적을수록 어휘발달이 촉진되었다(이지연 등, 2004; Hart & Risley, 1992).

어휘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의 변인들과 함께 영아의 내적인 변인으로 영아의 기질에 소수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장유경, 이근영, 2006; Bloom, 1993; Dixon & Smith, 2000; Salley, 2005). 기질은 그 동안 주로 애착, 문제행동, 양육태도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었고(나유미, 1999; 모인선, 김희연, 2005; 원영미, 박혜원, 이귀옥, 2004; 천희영, 2006), 한편으로는 인지, 정서발달과 관련되어 연구되었다(김연, 한태숙, 황혜정, 2004; 이명숙, 김영희, 2003; 조혜진, 이기숙, 2004; Coplan, Barber, & Lagacé-Séguin, 1999; Rothbart & Derryberry, 1981).

발달 초기의 기질적 차이는 초기 정보처리(Smith, Dixon, Jankowski, Sanscrainte, Davidson, & Loboschewski, 1997), 인지적 기능(Miceli, Whitman, Borkowski, Braungart-Rieker, & Mitchell, 1998; Singer & Fagen, 1992)과 관련하여 언어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사회적인 언어습득 상황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영아의 사회적인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기질은 언어적, 신경학적, 혹은

인지적인 설명과 함께 언어습득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변인으로 제시되었다(Bates, Bretherton, & Snyder, 1988).

Bloom(1993)은 중립적인 정서 혹은 기질이 언어발달과 관계된다고 주장했다. 언어와 정서는 동일한 인지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이 정서의 표현에 많은 주의의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어휘획득에 사용할 주의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아동이 정서표현에서 중립적이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신적 자원을 어휘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언어적 입력에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고, 언어적 입력이 기존의 의미망에 연결되는 동안에도 주의를 최대한 집중할 수 있다. 실제로 Bloom, Beckwith와 Capatides(1988)는 단어학습이 빠른 영아와 느린 영아 간의 가장 대조적인 차이는 중립적인 정서의 안정성에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말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자원의 경합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적인 기질을 가진 영아에게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더 많을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어발달을 촉진할 것이라는 반대의 주장도 있다. Slomkowski, Nelson, Dunn과 Plomin(1992)은 감정-외향성의 점수가 높은(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매우 협조적이고, 두려움이 적고, 매우 행복한) 24개월의 영아가 7세에는 8가지 언어 측정치 중 5가지에서 앞서 있음을 보고하였다. Dixon과 Shore(1997)도 13개월 기질에서 정적인 정서와 유사한 차원(예: 웃음)이 21개월의 언어적 표현력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Dixon과 Smith(2000) 역시 13개월의 적응성, 긍정적인 기분, 지속성으로 20개월의 표현어휘의 발달을 예언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Salley(2005)는 21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정서와 낮은 실행적 통제를 포함하는 까다로운 기질이 낮은 언어능력과 관계됨을 보여주었다. 유아의 기질은 어휘 외에도 학령전기의 초기 문해와 수 개념에 대한 수행을 예언하는데 있어 부모의 교육수준, 성, 어휘 수 보다 더 강력한 예언인이 되기도 한다(Coplan et al., 1999).

이상의 결과와 관련하여 18개월 한국 영아들의 기질과 어휘습득의 관계를 살펴 본 장우경과 이근영(2006)의 연구에서는 Bloom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Dixon 등의 주장과 일관되게 유쾌한 기분의 영아가 더 표현어휘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적응성이 높고 활동성이 낮은 경우 어휘를 더 많이 습득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합하면 언어와 기질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기질 중 기분의 차원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며(Bloom, 1993), 기분이 언어발달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긍정적 기분이 언어발달과 관계된다는 결과를 내 놓고 있지만 그 결과가 일관된 것은 아니다. 또한 후속 연구들에 의하면 기분 뿐 아니라 주의집중 능력과 관계하여 적응성, 지속성, 활동성 등 기질의 다른 차원들도 어휘습득과 관계된다(Dixon & Smith, 2000; Slomkowski et al., 1992). 그런데 언어와 기질의 관계를 연구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마치 언어발달이 단일한 과정인 것처럼 가정하고 발달의 한 시점에서의 기질(예: 13개월 기질)

과 또 다른 시점(예: 21개월 어휘)이나 동일 시점(예: 13개월 어휘)에서의 어휘습득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어휘습득의 단계에 따라 다른 기질의 차원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Gentner(1982)에 의하면 어휘습득의 과정은 매일 비슷한 숫자의 어휘들이 조금씩 습득되는 단조로운 과정이 아니며 단계적이며 단계별로 언어발달의 다른 특성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휘습득의 2단계는 참조(Reference) 단계로 표현어휘가 50~200개에 해당할 때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휘폭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루에 3~4개의 새로운 어휘를 습득할 만큼 어휘습득의 속도가 빨라진다. 3단계는 서술(Predication)단계로 동사와 형용사 등이 나타나면서 그 동안 명사 위주의 어휘에서 서술, 즉 관계적 의미를 입력하는 어휘들이 출현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 영아의 경우 대략 17~24개월이 2단계, 24개월~30개월이 3단계에 속하는데(장유경, 2004b) 이렇게 단계별로 습득되는 어휘와 어휘습득의 비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기질이 언어발달과 관계된다면 어휘습득의 단계별로 기질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실제로 최근에는 어휘습득에 있어 ‘발현적인 통합모델(emergentist coalition model)’이 제안되어(Bloom, 1998; Golinkoff & Hirsh-Pasek, 2006) 어휘습득의 시기별로 어휘습득을 인도하는 이론이나 단서들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의 통합을 통해 언어습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0개월경에 어휘습득의 초기단계에서는 대화 상대의 얼굴표정, 시선과 같은 사회적 단서보다는 대상의 지각적 단서가 영아들의 어휘학습에 더 중요한 단서가 된다. 12개월경부터 영아들은 사회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지만 단어학습에 사용하는 데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아니다. 그러다가 18~24개월 즈음이 되어야 사물의 이름을 배우는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의 얼굴표정, 시선과 같은 사회적 단서들을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후의 단계에서는 언어적 단서들이 어휘학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발현적 통합모델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어휘습득의 각 단계에서 서로 다른 단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어휘습득의 시기에 따라 기질에서도 서로 다른 차원들이 어휘습득과 관계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어휘습득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각적인 단서가 중요한 만큼 지각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관련된 기질의 차원이 더 중요하다가 영아들이 사회적 단서에 민감해지고 한국 영아들에게 있어 어휘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인 24개월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계되는 기질의 차원이 중요해질 수도 있다.

셋째, 실제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나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월령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이지연 등(2004)의 연구에서는 영아들의 어휘습득에 영향을 주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이 저월령에서는 피드백과 주의환기인데 비해 고월령에서는 피드백과 설명하기로 서로 달랐다. 또한 저월령에서는 어머니의 언

어적 입력 중 명사와 관형사가 어휘습득과 관계되었는데 비해 고월령에서는 품사의 영향이 없었다(장유경, 임현정, 곽금주, 2004).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어휘습득의 단계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 영향을 주는 기질의 변인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휘습득의 2단계는 한 단어 시기로 대표되는 시기이며 18개월은 대부분의 영아들에게서 아직 어휘폭발이 일어나기 전이고 사회적 단서들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Golinkoff & Hirsh-Pasek, 2006). 따라서 기질의 차원 중에서 사회성과 관계되는 긍정적 기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어휘습득의 3단계에서는 어휘폭발이 일어나서 1개월 동안에 120개의 새로운 어휘가 습득되는 시기이다(장유경, 2004b). 이 기간에는 새로운 어휘들을 구별하고 학습하는데 관계되는 적응성, 활동성과 같은 기질의 차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연구문제 1. 24개월에 어휘발달과 기질이 서로 관계되는가?

연구문제 2. 18, 24개월에 어휘발달과 관계되는 기질의 차원이 서로 다른가?(동시적 효과)

연구문제 3. 18개월의 기질이 24개월의 어휘발달에 관계되는가?(교차지연적 효과)

이를 알아보기 위해 Gentner의 어휘습득 단계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18개월과 3단계에 해당하는 24개월에 동일 영아의 어휘발달과 기질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솔종단연구의 18개월 검사와 24개월 검사에 모두 참여한 영아 279 명으로서 이들이 18개월 즉, 17개월 15일에서 18개월 14일($M=18.01$, $SD=0.32$)이 되었을 때와 24개월 즉, 23개월 15일에서 24개월 14일($M=24.1$, $SD=0.3$)이 되었을 때 각각 기질과 언어 발달을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 영아는 서울 및 경기도 신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의 영아로서 남자는 159명(57%), 여자는 120명(43%)이었다.

본 연구 대상 아버지의 80.2%와 어머니의 74.5%가 대졸 이상 학력자이며 연구 대상 가정의 61.3%는 월평균 201-400만원 소득의 가정이다. 2006년 1/4분기 도시가계 평균 소득이 3,443,933원(통계청, 2006)인 것을 볼 때 연구 대상 가정의 60% 이상이 중류층 가정에 해당한다.

2. 연구도구

영아의 기질 및 어휘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지들이 사용되었다.

기질 측정: 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 (TTS)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Toddler Temperament Scale(TTS)을 백경숙(1996)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TTS는 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TTQ: Fullard, McDevit, & Carey,

1984)의 9가지 기질구성 차원을 Saslow(1993)가 5가지 차원으로 수정한 기질 측정 도구이다. TTQ는 기질 측정의 타당성 조사연구(최영희, 1989)를 통해 97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이 .89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 문항의 양호도에도 문제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영유아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백경숙(1996)의 연구에서도 TTS 51개 문항 신뢰도 Cronbach α =.80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

타난바 있다.

TTS는 1세부터 3세까지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TTS의 구성 차원은 활동성(Activity), 접근-회피(Approach-Withdrawal), 적응성(Adaptability), 반응강도(Intensity), 기분(Mood)이며 총 51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에 TTS의 구성 차원과 문항 수가 제시되어 있다.

활동성(Activity)은 운동 행위(motor activity)를 말하며 아동이 목욕, 식사, 놀이 등을 하는 동

표 1. TTS의 구성 차원과 문항 수

구성차원	높은 점수의 의미	문항 수 (점수 범위)	문항 번호	
			정채점	역채점
활동성	신체의 움직임이 많다 (활동량이 많다) 문항 예: 이야기를 듣거나 그림책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못한다.	10 (10-40)	1,12,19,25, 27,31	7,9,34,38
접근-회피	회피하는 정도가 크다 (새로운 자극에 접하면 위축된다) 문항 예: 낯선 사람이 봐주려고 하면 울거 나 엄마에게 매달린다	9 (9-36)	5,28,45,49	14,20,23, 41,51
적응성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한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성이 낮다) 문항 예: 낯선 사람과 15분 이상 같이 있어 도 계속 그 사람을 경계한다.	9 (9-36)	22,42,46,48	6,17,30, 32,35
반응강도	반응 표현이 격렬하다 (강하게 반응 표현을 한다) 문항 예: 하던 일이 잘 안되면 큰소리로 울 거나 발을 구른다.	10 (10-40)	8,10,15,18, 24,39,43	2,29,37
기분	불쾌한 기분을 많이 보인다 (부정적 기분을 많이 지닌다) 문항 예: 잠에서 깨어나면 쾅그리거나 칭얼 대거나 혹은 운다.	13 (13-52)	4,11,13,26, 36,44,47,50	3,16,21, 33,40
전체		51 (51-204)		

안 신체 움직임이 활동적인가 활발치 못한가의 정도를 나타낸다.

접근-회피(Approach-Withdrawal) 척도는 새로운 상황(음식, 장난감, 사람)에 대한 초기 반응을 의미한다. 접근 반응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 긍정적인 기분 표현(미소, 긍정적 언어 표현과 표정)과 운동행위(가까이 하기, 활동적 놀이)를 나타내고 회피 반응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기분 표현(울음, 떠들기, 부정적인 언어 표현과 표정)과 운동 행위(물러나기, 밀어내기)를 나타낸다.

적응성(Adaptability)은 새로운 또는 변화된 상황에서 아동의 장기적 반응(long term response)이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초기의 반응이 아니고 아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되는데 용이한 정도를 나타낸다.

반응강도(Intensity)는 질이나 방향(긍정적 또는 부정적)에 관계없이 자극에 대한 아동의 반응 에너지 수준을 말하며 그 반응 표현이 격렬한 정도를 나타낸다.

기분(Mood)은 긍정적으로 즐거운, 기쁜 그리고 우호적인 행동과 기분을 우세하게 나타내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불유쾌한 울음이나 덜 우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지 말한다.

어휘체크리스트

연구 대상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이하 MCDI; Fenson, Dale, Reznick, Thal, Bates, Hartung, Pethick, & Reilly, 1993)를 한국어로 옮기고, 한국 영유아들에게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한 유아용 어휘체크리스트(배소영, 2002)를 사용하였다. 유아용 어휘체크리

스트는 총 641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93개(61.3%)가 영어판 MCDI에도 포함되어 있다. 유아용 어휘체크리스트의 어휘는 24개의 하위 범주로 나뉘는데 그 범주는 소리, 탈것, 장난감 및 문구류, 동물, 음식, 옷, 가구 및 방안, 신체 부위, 가정용품, 외부 사물, 일상생활, 장소, 양 및 정도, 사람, 의문사, 동사, 형용사, 끝맺는 말, 조사, 연결하는 말, 위치, 시간, 대명사, 돕는 말이다(장유경, 2004a).

3. 연구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학 또는 발달심리학 석사인 검사자들이 직접 연구 대상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TTS와 유아용 어휘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어머니가 두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유아용 어휘체크리스트는 각 어휘마다 영아가 그 의미를 알고 말로 직접 표현하는 어휘일 경우 표현어휘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영아의 기질 측정을 위해서는 TTS에서 기질의 구성 차원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어휘체크리스트 자료에서는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수를 산출하고 이를 Bates, Marchman, Tahl, Fenson, Dale, Reznick, Reilly와 Hartung(1994)의 어휘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 어휘 범주를 나누었다(장유경, 2004b).

4. 자료분석

기질 구성 차원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고 표현어휘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18개월과 24개월의 기질 점수와 표

현어휘수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t test를 실시하였다.

18개월과 24개월에서 각각 영아의 기질과 어휘 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질의 구성 차원 점수와 표현어휘수 간의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18개월과 24개월의 어휘 발달

표 2에 제시되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18개월 영아들의 평균 표현어휘 수는 54.1개이며, 24개월 시기의 평균 표현어휘수는 239.9개로 18개월에 비해 24개월의 표현어휘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t=-21.74$, $p<.001$). 또한 선행연구 결과(장유경, 2004b)와 마찬가지로 18개월과 24개월 영아의 어휘 습득에 있어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 18개월에는 최소 0개부터 최대 372개, 24개월에는 0개부터 631개까지의 어휘 습득을 하고 있어 영아의 초기 어휘 발달에 있어 개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18개월과 24개월에 영아들이 습득한 어휘수를 어휘의 종류 및 범주별로 나누어 보면 표

표 2. 18개월과 24개월의 표현어휘수 (N=279)

	표현어휘수				Paired-t
	M	SD	Min	Max	
18개월	54.1	63.6	0	372	-21.74***
24개월	239.9	168.1	0	631	

*** $p<.001$

3과 같다. 18개월에 명사류는 37.8개, 서술어는 8.9개, 문법적 기능어는 2.7개를 평균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개월에 영아는 명사류를 145.5개, 서술어를 61.7개, 문법적 기능어를 20.4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18개월, 24개월 표현어휘의 범주별 구성 (N=279)

(어휘수) \ 범주	18개월 표현어휘 M(SD)	24개월 표현어휘 M(SD)
명사류(329)	37.8(41.0)	145.5(89.9)
외부사물(26)	1.6(3.0)	9.7(8.0)
장소(25)	0.6(1.7)	5.9(6.5)
사람(33)	4.1(3.9)	12.3(7.4)
소리(11)	8.3(3.3)	9.0(3.1)
보통명사(234)	23.3(33.2)	108.6(68.7)
서술어(202)	8.9(18.4)	61.7(58.2)
동사(150)	6.4(14.6)	44.3(43.7)
형용사(52)	2.5(4.8)	17.4(15.7)
문법적기능어(79)	2.7(5.1)	20.4(21.1)
대명사(7)	0.4(1.0)	2.3(2.3)
양, 정도(14)	0.9(1.7)	5.1(4.4)
위치(8)	0.2(0.9)	2.3(2.9)
의문사(11)	0.4(0.9)	2.6(3.1)
끝맺는말(15)	0.5(1.3)	3.8(4.6)
조사(12)	0.2(0.8)	2.8(3.8)
연결하는말(6)	0.0(0.1)	0.7(1.4)
돕는말(6)	0.1(0.4)	0.8(1.5)
기타(48)	4.7(3.9)	12.3(6.8)
일상생활(14)	4.6(3.6)	9.8(4.2)
시간(34)	0.1(0.6)	2.5(3.9)
계	54.1	239.9

2. 18개월과 24개월의 기질 발달

연구 대상 영아의 기질점수를 총점 및 각 구성 차원별로 보면 표 4와 같다. 18개월의 경우 활동성은 평균 25.3점, 접근-회피는 평균 22.0점, 적응성은 평균 21.4점, 반응 강도는 평균 27.3점, 기분은 평균 27.8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활동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성이 큰 것을 의미하며 접근-회피는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 정도가 큰 것, 적응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강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 표현이 격렬한 것을 의미하며 기분에서도 점수가 높을수록 불쾌한 기분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24개월의 경우에는 활동성은 24.2점, 접근-회피는 21.1점, 적응성은 20.3점, 반응강도는

27.9점, 기분은 26.7점으로 나타났다. 18개월에 비해 24개월에는 활동성이 줄어들고($t=5.72$, $p<.001$) 낮은 상황에서 적응을 더 잘하고($t=6.78$, $p<.001$) 접근적이며($t=4.32$, $p<.001$) 더 긍정적인 기분을 갖는($t=5.57$, $p<.001$) 반면 반응강도는 더 높아지는($t=-2.51$, $p<.05$)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질과 어휘 발달 간의 관계

18개월과 24개월에 영아의 범주별 표현어휘수가 기질의 각 차원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질의 각 차원과 범주별 어휘수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18개월 기질과 18개월의 어휘

18개월의 기질과 어휘의 관계는 장유경과 이근영(2006)의 선행연구에서 그 관계를 확인한 바가 있지만 표본의 수가 달라졌고 24개월과의 비교를 위해 다시 확인하였다. 표 5에 제시된 18개월 표현 어휘와 기질의 차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분이 명사류($r=-.12$, $p<.05$), 기타 어휘($r=-.15$, $p<.05$) 그리고 표현어휘 전체($r=-.12$, $p<.05$)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기분의 경우 점수가 높은 것이 불쾌한 기분이 많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의 부적 상관은 유쾌한 기분이 많을수록 표현하는 명사류나 기타 어휘, 표현어휘 범주 전체의 갯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장유경, 이근영, 2006; Dixon, Shore, 1997; Dixon, Smith, 2000; Slomkowski et al., 1992)과 일치한다.

이외에 활동성과 적응성이 각각 명사류 중

표 4. 18개월과 24개월의 기질점수 (N=279)

	α 계수		M	SD	Paired-t
활동성	.64	18개월	25.3	3.3	5.72***
	.58	24개월	24.2	3.1	
접근회피	.83	18개월	22.0	4.1	4.32***
	.85	24개월	21.1	4.5	
적응성	.46	18개월	21.4	2.7	6.78***
	.52	24개월	20.3	2.8	
반응강도	.63	18개월	27.3	3.3	-2.51*
	.59	24개월	27.9	3.2	
기분	.61	18개월	27.8	3.6	5.57***
	.54	24개월	26.7	3.8	
전체	.59	18개월			
	.56	24개월			

* $p<.05$, *** $p<.001$

소리 항목의 어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22, p<.01, r=-.12, p<.05$) 표현어휘 전체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활동성이 낮거나 적응을 잘 할수록 표현어휘 중 소리에 해당하는 어휘를 더 많이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적응성에 있어서는 Dixon과 Smith(2000)의 연구에서 13개월의 적응성이 20개월의 표현어휘의 발달을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본 결과에서는 18개월에는 적응성이 표현어휘 전체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하위 범주 중 유일하게 소리범주와 유의한 상관

표 5. 18개월 표현어휘와 기질의 하위 차원간의 상관

어휘범주	기질의 차원	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명사류	-.06	-.05	-.07	-.01	-.12*
표 현 어 휘	보통명사	-.04	-.06	-.05	.00	-.10
	외부 사물	-.11	-.05	-.10	.01	-.12*
	장소	-.05	-.04	-.08	-.04	-.16*
	사람	-.02	-.11	-.09	-.01	-.20**
	소리	-.22**	.08	-.12*	-.11	-.04
	서술어	-.10	.01	-.05	-.01	-.09
	동사	-.09	.03	-.05	-.03	-.07
	형용사	-.09	-.06	-.06	.02	-.15**
	문법적 기능어	-.07	-.05	-.06	.00	-.11
	대명사	-.02	-.10	-.08	-.02	-.15*
	양, 정도	-.08	-.04	-.09	.02	-.10
	위치	-.07	-.08	-.06	-.04	-.13*
	의문사	-.02	.01	-.01	.01	-.05
	끝맺는 말	-.05	-.03	.04	.07	.01
	조사	-.05	-.01	-.07	-.09	-.07
	연결하는 말	-.03	.02	-.03	-.04	.01
	돕는말	-.02	-.00	.01	-.01	-.10
	기타	.04	-.09	-.06	-.01	-.15*
	일상생활	.05	-.09	-.05	.00	-.13*
	시간	-.07	-.04	-.08	-.06	-.15*
	표현전체	-.07	-.04	-.07	-.01	-.12*

* $p<.05$, ** $p<.01$

이 있었다. 정리하면 18개월의 전체 어휘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기질의 차원은 기분뿐이었다.

24개월의 기질과 24개월의 어휘

24개월의 표현어휘 발달과 기질의 하위 차원간의 상관을 살펴 본 표 6에서는 18개월의

경향성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류, 서술어, 문법적 기능어, 기타, 표현어휘 전체 각각에 대해 기분($r=-.16$, $r=-.15$, $p<.05$; $r=-.17$, $p<.01$; $r=-.14$, $p<.05$; $r=-.17$, $p<.01$)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18개월과는 달리 활동성($r=-.19$, $p<.01$; $r=-.17$, $p<.01$; $r=-.18$, $p<.01$; $r=-.13$, $p<.05$; $r=-.19$, $p<.01$)과

표 6. 24개월 표현어휘와 기질의 하위차원 간의 상관

어휘범주	기질의 차원	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표 현 어 휘	명사류	-.19**	-.03	-.19**	.00	-.16**
	보통명사	-.19**	-.02	-.19**	.00	-.16**
	외부 사물	-.18**	-.05	-.18**	.01	-.15*
	장소	-.16**	-.06	-.15*	-.01	-.15*
	사람	-.18**	-.06	-.18**	-.03	-.15*
	소리	-.11	-.07	-.09	.03	-.13*
	서술어	-.17**	-.05	-.14*	-.01	-.15*
	동사	-.17**	-.05	-.13*	.00	-.14*
	형용사	-.17**	-.05	-.16**	-.04	-.17**
	문법적 기능어	-.18**	-.04	-.14*	-.02	-.17**
	대명사	-.16**	.01	-.14*	-.04	-.15*
	양, 정도	-.19**	-.05	-.16**	-.02	-.16**
	위치	-.07	-.01	-.08	.00	-.20**
	의문사	-.20**	-.04	-.14*	-.01	-.13*
	끝맺는 말	-.17**	-.06	-.12*	.03	-.17**
	조사	-.15*	-.02	-.12*	-.02	-.12*
	연결하는 말	-.11	-.05	-.10	-.04	-.10
	돕는말	-.16**	-.01	-.11	-.04	-.12
	기타	-.13*	-.03	-.13*	-.03	-.14*
	일상생활	-.14*	-.04	-.14*	.00	-.11
	시간	-.07	-.02	-.07	-.05	-.13*
	표현전체	-.19**	-.04	-.17**	-.01	-.17**

* $p<.05$, ** $p<.01$

적응성($r=-.19$, $p<.01$; $r=-.14$, $p<.05$; $r=-.14$, $p<.01$; $r=-.13$, $p<.05$; $r=-.17$, $p<.01$)의 하위 차원이 표현어휘 전체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24개월에 활동성이 낮을수록, 적응성이 좋을수록, 유쾌한 기분의 성향을 지닌 영아들이수록 표현어휘 습득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8, 24개월에 전체 표현어휘의 습득에 서로 다른 기질의 차원들이 관계됨을 알 수 있다.

18개월 기질과 24개월의 어휘

한편 표 5와 6에서는 18개월과 24개월에 기질과 어휘 사이의 동시적 상관을 보았으나, 인과의 추론을 제시하기에 미흡함이 있다. 따라서 시간적 우선성이라는, 인과추론의 한 조건을 가진 자료를 활용하고자 18개월의 변인들과 24개월의 변인들 간의 상관을 표 7에서

살펴보았다.

이 상관들은 동시적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차를 가지고 관찰한 것이므로 해석에 있어서 시간적 우선성의 논리를 활용할 수 있다. 즉, 24개월의 변인이 18개월의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배제되며, 18개월의 변인이 24개월의 변인에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개연성(likelihood)을 높여준다. 먼저 표 7을 보면 6개월 간격을 두고 기질 간 종단적인 관계와 어휘 간의 종단적 관계는 자기회귀적(autoregressive) 관계로서 유의한 상관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개월과 24개월에서 기질과 어휘 사이의 교차지연적(cross-lagged)관계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질과 어휘 간에 직접적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유일하게 18개월의 반

표 7. 18개월과 24개월의 기질과 어휘의 상관

	18개월									
	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명사	서술어	문법적 기능어	기타
24 개 월	활동성	.52*	-.06	.28*	.12*	.07	-.11	-.11	-.14*	-.08
	접근회피	-.05	.71*	.20*	.00	.41*	-.04	-.03	-.08	-.07
	적응성	.23*	.22*	.55*	.08	.32*	-.01	-.03	-.08	-.11
	반응강도	.20*	.07	.20*	.44*	.16*	.00	.04	-.04	.02
	기분	.05	.40*	.30*	.09	.62*	-.12*	-.12*	-.18*	-.07
	명사류	-.09	.03	-.10	.09	-.05	.52*	.32*	.39*	.47*
	서술어	-.09	.01	-.09	.12*	-.06	.59*	.43*	.47*	.49*
	문법적 기능어	-.09	.01	-.07	.13*	-.06	.62*	.45*	.52*	.49*
	기타	-.05	.02	-.01	.07	-.02	.55*	.40*	.43*	.53*

* $p<.05$

응강도가 24개월의 서술어($r=.12$, $p<.05$)와 문법적 기능어($r=.13$, $p<.05$)의 수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18개월에 반응강도가 높은 영아들이 24개월에 서술어와 문법적 기능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와 6의 동시적 상관에 기저하고 있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제3의 변수들이 있어서 그들 간의 관련성을 맺어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흥미롭게도 기대한 바와는 달리 오히려 18개월의 어휘수와 24개월의 기질사이에 더 많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18개월 명사, 서술어, 문법적 기능어는 24개월의 기분(명사 $r=-.12$, $p<.05$; 서술어 $r=-.12$, $p<.05$; 문법적 기능어 $r=-.18$, $p<.05$)과 부적인 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5와 6의 동시적 상관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차이가 있는 자료에 대한 상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18개월의 어휘와 24개월 기질 간의 상관을 해석하면 18개월에 명사류, 서술어, 문법적 기능어를 많이 가진 영아들이 24개월에 기분이 유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8개월에 문법적 기능어를 많이 가진 영아들이 24개월에 활동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치 않던 결과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일부 결과(예: 18개월의 반응강도와 24개월의 서술어, 문법적 기능어)에 의하면 기질과 어휘습득의 관계에 있어 동일 시기에 기질과 어휘가 서로 상관이 있거나 혹은 한 시기의 기질이 후속되는 시기의 어휘습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결과는 종단적으로 볼 때 기질이 어휘습득에 영향을 줄 가능성 뿐 아니라 그 반대로 현재의 어휘수준이 오히려 향후(적어도 6개월 후) 영아의 기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시사한다.

24개월의 어휘수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기질과 어휘수간의 단순상관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24개월의 어휘수는 18개월 어휘수와 자기 회귀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 18개월 기질로부터의 교차 지연적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천이 함께 예측변인으로 될 경우 서로가 중복되는 부분을 통제하고 난 후의 고유한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위계적(hierarchical)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우선은 18개월의 4개 어휘범주 중 24개월의 어휘에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변인을 도출하여 유의한 어휘 변인군(Cohen & Cohen, 1983 에서의 functional set)을 정의하였다(표 8의 분석 1, 3, 5, 8). 18개월의 5개 기질변인에서도 24개월 어휘에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기질 변인군을 정의하고자 하였다(표 8의 분석 2, 4, 6, 9). 다음은 유의한 어휘변인군과(A) 기질변인군을(B) 동시에 종속변인(24개월 어휘)의 회귀식에 넣어서 R_{AB}^2 를 구하였다(표 8의 분석 7). 이 R_{AB}^2 에서 R_A^2 를 빼면 기질변인군의 고유한 설명력이 되고(표 8의 분석 5 vs 7), R_B^2 를 빼면 어휘변인군의 고유한 설명력이 된다(표 8의 분석 6 vs 7).

표8에서 보면 24개월 어휘를 예측하는데 있어 18개월 기질의 영향은 매우 작았다. 유일

표 8. 24개월 어휘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분석 ^a	종속변인	18개월 어휘 및 기질	b	R ²	ΔR ²	비고
1	명사	명사 서술어 기타	1.13* -1.07* 5.55*	.31*		24개월 명사수준을 예측하는 18개월 어휘변인군
2	명사	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2.59 1.77 -2.84 4.21* -1.85	.04(NS)		
3	서술어	명사 기타	.71* 1.94*	.36*		24개월 서술어 수준을 예측하는 18개월 어휘변인군
4	서술어	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2.03 .73 -1.30 3.28* -1.52	.04(NS)		
5	문법적 기능어	명사	.32*	.39*		24개월 문법적 기능어 수준을 예측하는 18개월 어휘변인군
6	문법적 기능어	활동성 반응강도	-.97* 1.17*	.04*		24개월 문법적 기능어 수준을 예측하는 18개월 기질변인군
7	문법적 기능어	활동성 반응강도 명사	-.71* 1.12* .32*	.41*		
5 vs 7 6 vs 7	문법적 기능어				.02* .37*	활동성과 반응강도의 고유효과, 명사의 고유효과
8	기타	명사 기타	.06* .47*	.34*		24개월 기타 어휘 수를 예측하는 18개월 어휘변인군
9	기타	활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	-.19 .05 .05 .24 -1.11	.01(NS)		

a N=279 * $p < .05$

하게 문법적 기능어에 대해서 활동성과 반응 강도($R^2 = .04$, $F=5.35$)가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즉, 18개월에 활동성이 낮고 반응 강도가 높은 유아들이 24개월 문법적 기능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앞서의 상관표에서 활동성과 문법적 기능어는 단순상관의 크기로 보아 유의하지 않았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억제변인(suppressor) 현상으로 인하여 돋보이게 되었다.

24개월의 어휘를 예측하는데 있어 18개월의 어휘는 대체로 30% 혹은 그 이상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8개월 명사류는 24개월의 모든 어휘에 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휘습득의 초기 과정에서 특히 명사의 습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Gentner, 1984).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어휘발달의 각기 다른 시기에 어휘습득과 기질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한 영아들이 각각 18개월일 때와 어휘폭발의 시기를 거친 24개월이 되었을 때 기질과 어휘수를 종단적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4개월에 어휘발달과 기질이 서로 관계되는가? 24개월에서도 기질과 어휘발달이 관계되었다. 기분은 표현어휘 전체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서 기분이 유쾌한 영아일수록 표현어휘수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립적인 기분이 어휘의 표현기회를 더 제공할 것이라는 Bloom(1993), Bloom등(1988)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Dixon과 Shore(1997), Dixon과 Smith(2000), Slomkowski 등(1992)의 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는 어휘습득의 단계와 무관하게 유쾌한 기분을 가진 영아들이 사람들과 쉽게 상호작용하고 따라서 언어적 표현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장유경, 이근영, 2006).

또한 24개월의 활동성과 적응성은 전체 표현어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24개월에 덜 활동적이고 적응성이 높은 기질의 영아들이 더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18개월과 마찬가지로 24개월에서도 기질과 어휘발달이 서로 관계되었다.

둘째, 18, 24개월에 어휘발달과 관계되는 기질의 차원이 서로 다른가? 결과적으로 18개월과 24개월에 어휘발달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기질의 차원이 서로 달랐다. 18개월에는 기분만이 전체 표현어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는데 비해 24개월에는 기분, 적응성, 활동성이 전체 표현어휘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18개월보다 24개월에서 어휘발달에 관계되는 기질의 차원이 더 많아졌다.

기질의 차원 중 지속성, 주의집중과 같은 주의통제에 관련되는 차원들이 사회성, 양심의 발달(Kochanska, 1991; Rothbart & Bates, 1998) 뿐 아니라 문해, 수 세기처럼 학업과 관련된 능력의 발달(Coplan et al., 1999)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본 연구에 사용된 기질 차원 중 활동성과 적응성은 주의집중과 통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활동성이 낮고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할수록 정신적 에너지를 어휘습득과 사용이라는 과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언어적 입력이 소개될

때 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존의 의미망에 연결하는 동안 주의를 최대한 집중할 수 있다면 새로운 어휘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를 통제하는 능력이 더 발달된 아동들이 모자 간의 공동주의도 더 잘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언어발달에 도움을 받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Carpenter, Nagell, & Tomasello, 1998; Tomasello & Farrar, 1986).

그러나 활동성과 적응성이 18개월에는 표현 어휘수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24개월이 되어야 표현어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은 어휘습득의 단계에 따라 기질의 각기 다른 차원이 관계될 뿐 아니라 더 많은 기질의 차원들이 관계됨을 보여준다. 발현적 통합모델에서도 어휘발달의 단계마다 서로 다른 단서들이 어휘습득을 이끈다는 주장을 지지하면서 어휘발달이 진행되면서 단순히 다른 단서들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더 많은 단서들이 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안한다.

특히 18개월은 참조의 단계로 주로 명사를 획득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유쾌한 기분이 표현어휘수와 상관이 있는 것은 50개 미만의 어휘를 습득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영아의 기분이 유쾌하여 양육자나 기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24개월은 3단계의 시작점으로 이 시기에는 동사, 형용사 등의 서술어를 습득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어휘습득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습득되는 시기인 만큼 상호작용의 기회와 함께 학습, 주의집중에 관계되는 활동성, 적응성도 함께 중요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18개월의 기질이 24개월의 어휘발달

에 관계되는가? 기질과 어휘습득의 관계를 교차 지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24개월 어휘를 예측하는데 있어 18개월 기질의 영향은 매우 작았고 오히려 18개월의 어휘가 24개월의 기질과 관계되었다. 18개월의 기질 중에서는 유일하게 활동성과 반응강도만이 문법적 기능어에 대해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즉, 18개월에 활동성이 낮고 반응강도가 높은 유아들이 24개월 문법적 기능어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것은 18개월의 어휘와 24개월의 기질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로 18개월에 명사류, 서술어, 문법적 기능어를 많이 가진 영아들이 24개월에 기분이 유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상치 못하던 결과로서 적어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에는 기질과 어휘습득의 관계가 양방향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특히 어휘습득이 한창 진행되는 18개월 시기에 어휘가 부족하여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영아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기질(혹은 어머니의 기질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24개월의 어휘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18개월의 기질은 그리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았으며 예상하는 바와 같이 18개월의 어휘수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질과 어휘습득 사이의 교차지연적인 관계에 대한 이상의 가능성들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는 기질과 어휘의 관계를 1년 이상 종단적으로 추적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기질과 함께 부모의 양육 유형이나 언어적 입력의 양 혹은 상호작용의 유형이 영아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정서의 영아에게는 부모의 언어적 입력이 적을 수 있고 활동적이고 주의집중이 잘 안 되는 영아에게는 주의환기를 위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어휘습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혹은 기분이 유쾌하지 않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영아를 혼자 내버려 두는 엄마와 언어적으로 타이르는 엄마의 양육유형에 따라 언어적인 입력이나 상호작용의 영향도 달라지고 그 결과로 어휘습득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 한태숙, 황혜정 (2004). 유아의 정서지능, 인지능력,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성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 277-298.
- 나유미 (1999).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관련 변인: 애착과 기질. *아동학회지*, 20, 75-89.
- 모인선, 김희연 (2005). 유아의 성격, 부모 만족도와 양육태도의 관계. *아동교육*, 14, 131-144.
- 배소영 (2002). 유아용 어휘체크리스트. 한국영아발달연구센터.
- 백경숙 (1996). 영유아의 종일제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원영미, 박혜원, 이귀옥 (2004).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4, 311-333.
- 이명숙, 김영희 (2003). 유아의 기질과 정서능력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7, 163-181.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31-146.
- 장유경 (1997). 한국 유아의 초기 어휘획득에서 제약성의 역할(I). *인간발달연구*, 4, 76-87.
- 장유경 (2004a).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8개월~17개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77-99.
- 장유경 (2004b).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18개월~36개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91-105.
- 장유경, 이근영 (2006). 영아의 기질과 초기 어휘발달. *아동학회지*, 27, 263-276.
- 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 (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27-241.
- 장유경, 임현정, 곽금주 (2004). 언어적 입력의 품사가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05-120.
- 조혜진, 이기숙 (2004).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 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24, 263-284.
- 천희영 (2006). 아동의 기질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1980~2004. *아동학회지*, 27, 4, 17-38.

- 통계청 (2006). 도시가게 월평균 소득.
- Akhtar, N., & Tomasello, M. (2000). The social nature of words and word learning. In R. Golinkoff & K. Hirsh-Pasek (Eds.), *Becoming a word learner: A debate on lexical acquisition*. Oxford, U.K.L Oxford University Press.
- Baldwin, D. A. (2000). Interpersonal understanding fuels knowledge acquisi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 40-45.
- Bates, E., Bretherton, I., & Snyder, L. (1988). *From first words to grammar: Individual differences and dissociable mechanism*.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 L. (1993). *The transition from infancy to language: Acquiring the power of express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 L. (1998). *Language acquisition in its developmental context*. In D. Kuhn and R. S.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 Bloom, L., Beckwith, R., & Capatides, J. (1988). Developments in the expression of affec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1, 169-186.
- Carpenter, M., Nagell, K., & Tomasello, M. (1998). Social cognition, joint attention,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from 9 to 15 months of ag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3 (4, Serial No. 255).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plan, R. J., Barber, A. M., & Lagacé-Séguin, D. G. (1999). The role of child temperament as a predictor of early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in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4, 537-553.
- Dixon, W., & Shore, C. (1997). Temperamental predictors of linguistic style during multiword acquisit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0, 99-103.
- Dixon, W., & Smith, P. H. (2000). Links between early temperament and language acqui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6, 417-440.
- Gentner, D. (1982). Why are nouns learned before verbs: Linguistic relativity versus natural partitioning. In S. A. Kuczaj II (Ed.), *Language development: Vol. 2.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Hillsdale, NJ: Erlbaum.
- Golinkoff, R. M., & Hirsh-Pasek, K. (2006). Baby wordsmith: From associationist to social sophisticat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 30-33.
- Hart, B., & Risley, T.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Brookes.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Huttenlocher, J., Haight, W., Bryk, A., Seltzer, M., & Lyons, T. (1991). Early vocabulary growth: Relation to language input and

-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36-248.
- Kochanska, G. (1991). Socialization and temperament in the development of guilt and conscience. *Child Development*, 62, 1379-1392.
- Markman, E. (1989). *Categorization in children: Problems of induction*. Cambridge, MA: MIT Press, Bradford Books.
- Markman, E., & Hutchinson, J. E. (1984). Children's sensitivity to constraints on word meaning: Taxonomic vs. thematic relations. *Cognitive Psychology*, 16, 1-27.
- Miceli, P. J., Whitman, T. L., Borkowski, J. G., Braungart-Rieker, J., & Mitchell, D. W. (1998).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information processing: The role of temperamental and maternal facto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 119-136.
- Plunkett, K. (1997). Theories of early language acquis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4), 146-153.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 (pp.37-86). Hillsdale, NJ: Erlbaum.
- Salley, B. J. (2005). *Does joint atten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Johnson City: TN.
- Saslow, E. R. (1993). *Temperament and day care: An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expression across set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Singer, J. M., & Fagen, J. W. (1992). Negative affect, emotional expression, and forgetting in young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8-57.
- Slomkowski, C. L., Nelson, K., Dunn, J., & Plomin, R. (1992). Temperament and language: Relations from toddlerhood to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90-1095.
- Smith, L. B. (1995). *Self-organizing processes in learning to learn words: Development is not induction*. In C. A. Nelson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28). Mahwah, NJ: Erlbaum.
- Smith, P. H., Dixon, W. E., Jankowski, J. J., Sanscrainte, M. M., Davidson, B. K., & Loboschewski, T. (1997).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habituation and temperament in infancy. *Merrill-Palmer Quarterly*, 43, 291-304.
- Tomasello, M., & Farrar, M. J. (1986). Joint attention and early language. *Child Development*, 57, 1454-1463.

1 차원고접수 : 2007. 07. 01.

수정원고접수 : 2007. 09. 02.

최종게재결정 : 2007. 09. 04.

The Effects of Infants' Temperament on Early Vocabulary Acquisition at 18 and 24 Months

Chang-Song, You-Kyung

Lee, Keun-Young

Choi, Yu-LI

Lee, Soonmook

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ir early vocabulary acquisition. Mothers of 279 toddlers completed the Toddler Temperament Scale (TTQ: Fullard, McDevit, & Carey, 1984) and a vocabulary checklist (Pae, 2002) at both 18 and 24 months. At 18 months, only mood was associated with vocabulary acquisition. However, mood, adaptability, and activity were associated with vocabulary acquisition at 24 months. More specifically, infants who were rated as having a positive mood, being easily adaptable and having a low activity level tended to acquire more expressive words at 24 months. Also, the cross-lagged relations between 18 and 24 months revealed that infants with high response intensity acquired more predicates and function words. Finally, infants with more nouns, predicates, or functional words at 18 months were rated as having a more positive mood at 24 months. The results suggest that different components of temperament may influence different stages of vocabulary acquisition and that the direction of influence between temperament and vocabulary acquisition might be bi-directional during this short period.

Key words : temperament, vocabulary acquisition, mood, adaptability, expressive words